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24일 화요일 음 3월 1일 (8물)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6~9℃, 낮 최고 기온은 15~17℃의 분포를 보이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0%	제 주	0%
0%	성 산	0%
0%	고 산	0%
0%	서귀포	0%

	해뜸 06:32 / 해짐 18:49	달뜸 06:43 / 달짐 18:40
물때	만조 11:02 / 23:08	간조 05:07 / 17:29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한때 비	9/20℃
모레	흐리고 비	13/20℃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월드뉴스

뉴질랜드 전국 봉쇄령… 전 국민 자가격리

25일 4단계 경보 격상

기자회견하는 저신다 아던 총리.

뉴질랜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 경보체제를 23일 2단계에서 3단계로 높이고, 48시간 뒤에는 이를 최종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해 사실상 전국을 봉쇄하기로 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바이러스로부터 파괴적인 피해를 볼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경보체제의 단계적인 격상을 발표했다.

그는 경보체제 3단계 아래서는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수영장 등이 폐쇄되고 대규모 집회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이어 48시간 뒤에는 경보체제가 4단계로 격상된다며, 이 단계는 최소한 4주 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4단계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고 여행도 많이 제한된다며 학교와 대학들은 24일부터 25일 사이에 모두 폐쇄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인 접촉을 줄이기 위해 슈퍼마켓, 주유소, 약국, 병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던 총리는 "우리는 지금 전국민이 타국에서 하는 것처럼 자가 격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집에 머무는 게 필수적"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제한조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경찰력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제주문화를 일군 역사인물 김정들(Ⅱ)

문 영 택
(사)질토래비 이사장

다시 제주의 역사문화를 일군 김정들을 만난다. 서귀포시에 '김정문화회관'을 기증한 김정 여사, 노봉 김정 목사 그리고 충암 김정 선생이 그분들이다.

산지천과 동성(東城) 사이에 있었던 삼천서당은, 제주에서 운명한 노봉 김정 목사가 1735년 세운 학교이다. 경북 봉화군 출신인 김정 목사는 '무리가 있으면 학교가 있어야 하고 집이 있으면 글방이 있어야 하는데, 천년 사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이루게 되었으니, (중략) (선비들이) 아름다운 풍습을 드러내고 옛 풍습을 계승해 영세토록 새롭게 해 주소서.'라는 삼천서당 상량문을 남겼다. 그는 또 '노봉집'에 충암 김정을 흠모하는 다음의 기록도 남겼다. '가락천 근처 돌이 널려 있는 사이에 생긴 말(斗)통 모양의 작은 우물은, 충암 김선생께서 귀양살이 할 때 판 것으로 판서정(判書井)이라 부른다. 혹 백세 후에 찾지 못할까 해 우물가 돌에 새겨 표시했다.'

충암 김정은 22세에 대과에 장원급제, 35세에 형조판서가 되어 조광조와 함께 미신타파와 향약의 전국적 시행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기묘사화에 연루돼 제주에 유배된 충암은 1521년 사사될 때까지 1년 2개월 간 제주유생들을 훈학하며 '제주풍토록'을 기록했다. 제주풍토록은 16세기의 제주를 담은 제주 최초의 풍토지이자 훌륭한 수필로도 평가받는다. 다음은 제주풍토록에 실린 유배지에 관한 기록이다. '내가 사는 곳은 동문 밖 한 마장쯤 거리에 있는 금강사 옛 절 자리에 있다. (중략) 안에는 작은 온돌방 하나가, 밖에는 대청마루가 있어 별도 쪼일 수 있고, 달도 구경할 수 있다. 대청 처마 아래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있다.'

1545년 사면된 충암은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간(文簡)이란 시호를 받는다. 1578년 제주판관 조인후는 충암 김정의 넋을 달래고자 산지 가락천 동쪽에 충암묘(廟)를 세웠다. 1658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괴는 제주선비 명도암 김진용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성판윤을 지낸 고득종의 집터에 장수당(藏修堂)이란 학사를 짓고 훈학활동을 펼쳤다. 1665년 최진남 판관은 가락천에 있던 충암묘를 장수당 남쪽으로 옮기니, 드디어 사당(祠)과 교실(齋)을 갖춘 귤림서원이 세워지고, 1682(숙종 8년) 사액이 내려와 김정·송인수·김상헌·정온을 모시다, 1696년 송시열 등 5현을 배향하게 된다. 귤림서원이 들어선 오현단에는 충암 유허비도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 1852년 제주목사 백희수가 충암의 적거터에 세우게 했던 것을 해방 후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우리는 세상살이 이치와 삶의 여러 모양을 문화라 한다. 필자는 평소 문화를 언문(言文)과 교화(敎化)의 준말로 여기고 있는바, 간신들의 말과 글로 제주에 유배와 사사된 충암 김정 시대의 선비문화가 이를 증명한다 하겠다. 문화는 곧 말과 글을 어떻게 가꾸고 다듬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느냐에 달려있을 게다. 결국 개인과 집단이 쓰는 말과 글이 곧 우리 문화의 가늠자인 셈이다.

열린마당

어떤 사람

문 성 두
대정농협 이사

뺑소니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녁에 아내가 밖에 나간 후 조금 있으니 '은영 엄마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22일째 되는 날 오늘 집에 아내없이 지내보니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지금까지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고통분담을 나누기 위해 지금까지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아내 고통을 생각하며 제대로 못자며 자나깨나 아내 걱정을 합니다.

아내는 오히려 남편 걱정을 평소보다 더합니다.

"감기 조심헙써, 술 적당히 마십써."

일을 하려고 준비해서 갈려면 저절로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옆에 있을땐 못 느꼈는데 없어보니 외로움을 절실히 느껴지며 딸들도 엄마 걱정, 아빠 걱정에 힘들어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온 가족이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회복이 되면 아내에게 지금까지 못한 부분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러납니다.

코로나19 잠잠해지면 생활문화플랫폼으로

진 은 숙
서귀포시 문화예술팀장

코로나19가 평범한 일상을 집어삼켰다. 서귀포시 지역에서 2~3월 준비했던 문화예술 행사가 모두 취소됐고, 제주월드컵경기장 유휴공간에 조성해 2월 오픈 예정이던 '서귀포시 생활문화플랫폼' 개소도 무기한 연기됐다. 생활문화플랫폼 개소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이 위기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인연에도 없었던 바이올린에 푹 빠졌다던 지인은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는 과수원 창고에서 개인연습을 하고 있다고 했다. 퇴직 후 색소폰을 불기 시작한 옛 동료직원은 연습실이 없어 주말마다 1시간정도 걸리는 성산 소재 동아리 연습실로 간다고 한다. 매일 밤 윗층에서 들리는 기타와 노랫소리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친구의 투덜거림도 가끔 들린다.

서귀포시의 생활문화플랫폼은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간이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니지만 330㎡ 남짓한 아기자기한 공간은 악기연습 뿐 아니라 춤, 요가, 연극, 공예 등 생활문화를 즐기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조성됐다.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화생활을 자주 즐기는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길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일정기간 사망자 표본을 분석한 결과 일상에서 문화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비율이 30%가량 차이를 보인 것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과의 동행이 필요하고, 생활문화플랫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서귀포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원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안타깝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문화의 봄을 기다리는 것은 어떨까?